사회서비스 현장
ESG 우수사례집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투명한 경영(Governance)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PASS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Jeonbuk Stat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사회서비스 현장 ESG 우수사례집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SG 활동 06

사회서비스 기관 ESG 활성화지원 공모사업 19

❶ (군산시니어클럽) 톡talk!!, 톡talk!! 라떼와 MZ 20

❷ (금암노인복지관) 달빛마루, 모두를 위한 밤의 쉼터 24

❸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ESG 활성화사업, '우린, 행복파트너!' 28

❹ (동산사회복지관) 'Icy원해(아이시원해)' 32

❺ (바다의향기) 빛나는 일상, 존중받는 삶 36

❻ (순창시니어클럽) 순창에코시니어 공작소 40

❼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 다시 쓰는 우리 이야기 44

❽ (임실시니어클럽)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새활용 탐험대' 48

❾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선배시민, ESG 가치확산 프로젝트 52

❿ (전주시니어클럽) 세대를 잇는 Green 체험교실 56

⓫ (정읍천사마을) 소통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ESG 활동 60

⓬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너도 나도 에코시민 64

⓭ (효자시니어클럽) 다시, 페트의 삶 '순환의 첫걸음' 68

사회서비스 현장 ESG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73

❶ (최우수작)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74

❷ (우수작) 임실시니어클럽 78

❸ (장려작)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84

❹ (특별작) 군산노인종합복지관 88

❺ (특별작)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92

❻ (특별작) 완주시니어클럽 96

❼ (특별작)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100

❽ (특별작) 정읍시니어클럽 104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SG 추진체계 110

발 행 처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발 행 인 서양열

편집부서 품질혁신팀

디자인 · 인쇄 예문 063.287.2221

PASS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몇 년간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치를 사회서비스 현장에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ESG 우수사례집」은 그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사례집에는 어르신, 장애인, 청년, 다문화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환경을 지키고, 사회적 포용을 확산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ESG의 본질을 보여주며,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프로그램, 세대와 문화를 잇는 교류 활동, 자원순환과 업사이클링을 통한 환경보호, 그리고 투명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실천은 전북형 ESG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ESG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집이 현장의 실천을 공유하고, 더 많은 기관과 주민들이 ESG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례집 발간에 협력해주신 모든 기관과 참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ESG 실천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SG 활동

ESG 스토리(1)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SG 스토리(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SG 스토리(3)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ESG 스토리(4)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ESG 스토리(5)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ESG 스토리(6) 장수군가족센터

E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ESG 스토리 ①

“지친 마음을 잇다, 서로가 되는 응원”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람과 가치가 만나는 현장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기관 권역별 종사자 응원행사

지난 10월 29일, 정읍 JB금융그룹 연수원은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앉아서 보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뛰고 웃고 싶었습니다.” 이날 열린 ‘서부권역 종사자 응원행사’는 기존의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145명의 종사자가 팀을 이뤄 미션을 수행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앞서 7월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남부권역 응원행사’가 문화공연을 통한 정서적 쉼을 선물했다면, 이번 서부권역 행사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연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 현장의 핵심 자산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ESG 경영 철학이 생생하게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ESG 경영, 생활 속으로

이번 응원행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사의 형식을 진화시킨 점이 돋보입니다.

- S (Social): 종사자 권익 증진과 심리적 안전망 구축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닌, 동료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해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 G (Governance): 현장 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의사결정 남부권역 행사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된 “교류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서부권역 행사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또한 정읍·김제·부안·고창 등 4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서부권역 행사에서는 AI 퀴즈, 팀 대항 게임, 방탈출 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타 기관 종사자들과 어색해하던 참가자들은 미션을 함께 해결하며 금세 하나가 되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잊고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 선생님들과 협력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참여한 종사자의 소감처럼, 이날 행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적 연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6% 이상이 행사에 만족했으며, 95%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과와 의미

- 현장 중심형 힐링: 관람 위주(남부권역)에서 참여 위주(서부권역)로 진화하며 종사자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
- 네트워크 활성화: 권역별 유관기관(사회복지협의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공동체 의식 제고
- 소진 예방의 실질적 효과: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재충전 기회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기반 마련

이번 권역별 응원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종사자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이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앞으로의 여정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종사자 응원행사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참여형 콘텐츠와 힐링 요소를 균형 있게 배분하고, 소그룹 네트워킹 시간을 확대하여 더욱 깊이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종사자가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사람 중심의 ESG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결론

남원의 감미로운 음악 선율에서 정읍의 뜨거운 함성까지, 2025년의 응원행사는 전북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신의 노고를 기억하고 응원합니다.” 이 따뜻한 메시지는 종사자들에게 다시 현장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협력을 동시에 이뤄낸 ESG 경영의 우수한 모델로 기억될 것입니다.

ESG 스토리 ②

“안전을 잇다, 마음을 지키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람과 가치가 만나는 현장

2025년 도내 사회서비스기관 시설안전점검 및 물품 지원

“우리 기관은 소규모라 전문적인 안전 점검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컨설팅 덕분에 화재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안전점검팀은 도내 62개 사회서비스 기관을 구석구석 누볐습니다. 정읍의 한 지역아동센터부터 전주의 노인복지시설까지,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 및 방역 지원’ 사업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ESG 경영, 생활 속으로

이번 사업은 사회서비스 현장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치인 ‘안전(Safety)’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E (Environment):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62개소에 꼼꼼한 방역 소독을 지원하고, 위생 관리 매뉴얼을 안내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 S (Social): 안전 약자의 든든한 울타리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화기, 감지기, 비상조명등 등 맞춤형 안전물품을 44개소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 G (Governance):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 지원 대상 선정 시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 꼭 필요한 물품을 선별 지원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은 한 기관장은 “막연했던 안전관리가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체계 잡혔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물품 지원을 받은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래된 소화기를 교체하고 싶어도 예산 문제로 미뤄왔는데, 이번 지원으로 큰 짐을 덜었다”며 안도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컨설팅과 방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8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문제 해결 기여도’와 ‘안전 확보 효과’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과와 의미

- 사각지대 해소: 자체적인 안전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영세 기관 62개소 집중 지원
- 실질적 개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화재감지기, 투척용 소화기 등 필수 안전물품 10종 맞춤 지원
- 인식 개선: 단순 점검을 넘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이번 활동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특성에 맞춘 '선택형 지원(방역/컨설팅)' 방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사회서비스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결론

작은 소화기 하나가 큰 화재를 막듯, 이번 안전점검 및 물품 지원 사업은 도내 사회서비스 현장에 튼튼한 안전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 아래,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도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SG 스토리 ③

“노인학대 예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합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사람과 가치가 만나는 현장

6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 전주시 풍남문광장은 특별한 의미로 물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14개소가 함께한 ‘노인학대예방의 날 연합홍보 캠페인’이 열린 것이다.

이날 광장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모여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가치를 전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행사 그 이상으로,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장면이었다.

ESG 경영, 생활 속으로

이번 캠페인의 출발점은 기관장 월례회의였다. “우리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ESG 경영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연합 캠페인이 기획되었다.

- E(Environment): 예산을 들이지 않고, 친환경적 ·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
- S(Social):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주민과 함께 해결
- G(Governance):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투명하게 실행

이처럼 ESG의 세 가지 축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현장의 목소리

6월 12일 오후, 풍남문 광장은 활기를 띠었다. 캠페인 안내와 소속시설 소개, 인사와 홍보 활동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방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종사자의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6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됐다.

SNS를 통해 확산된 메시지는 오프라인 활동과 맞물려 더 큰 파급력을 발휘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참여형 홍보 방식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성과와 의미

- 법정기념일을 활용해 노인학대 예방 인식 제고
- 지역사회 주민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립 목적 홍보
- 사회서비스원의 비전과 미션 확산
- ESG 경영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속가능한 발전 캠페인을 위한 기반 마련

이번 활동은 단순한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회공헌 활동의 출발점이자 모범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앞으로의 여정

사회서비스원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날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속시설의 사업 목적을 널리 알리고,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결론

풍남문 광장에서 시작된 작은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다.
“노인학대 예방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메시지가 시민들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ESG 경영의 가치는 생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이 법정기념일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ESG 경영의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ESG 스토리 4

“작은 선언이 만든 큰 변화”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5년 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은 한 자리에 모였다.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 이 날은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ESG 경영 실천 선언을 낭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짐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관장과 부장, 대리, 직원들까지 모두 참여했다. 선언문을 읽는 목소리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환경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은 선언을 통해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ESG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윤리적 행동강령을 지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작은 선언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기관은 지역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줍깅(플로깅)’ 같은 생활 속 ESG 실천을 확산시켰다. 직원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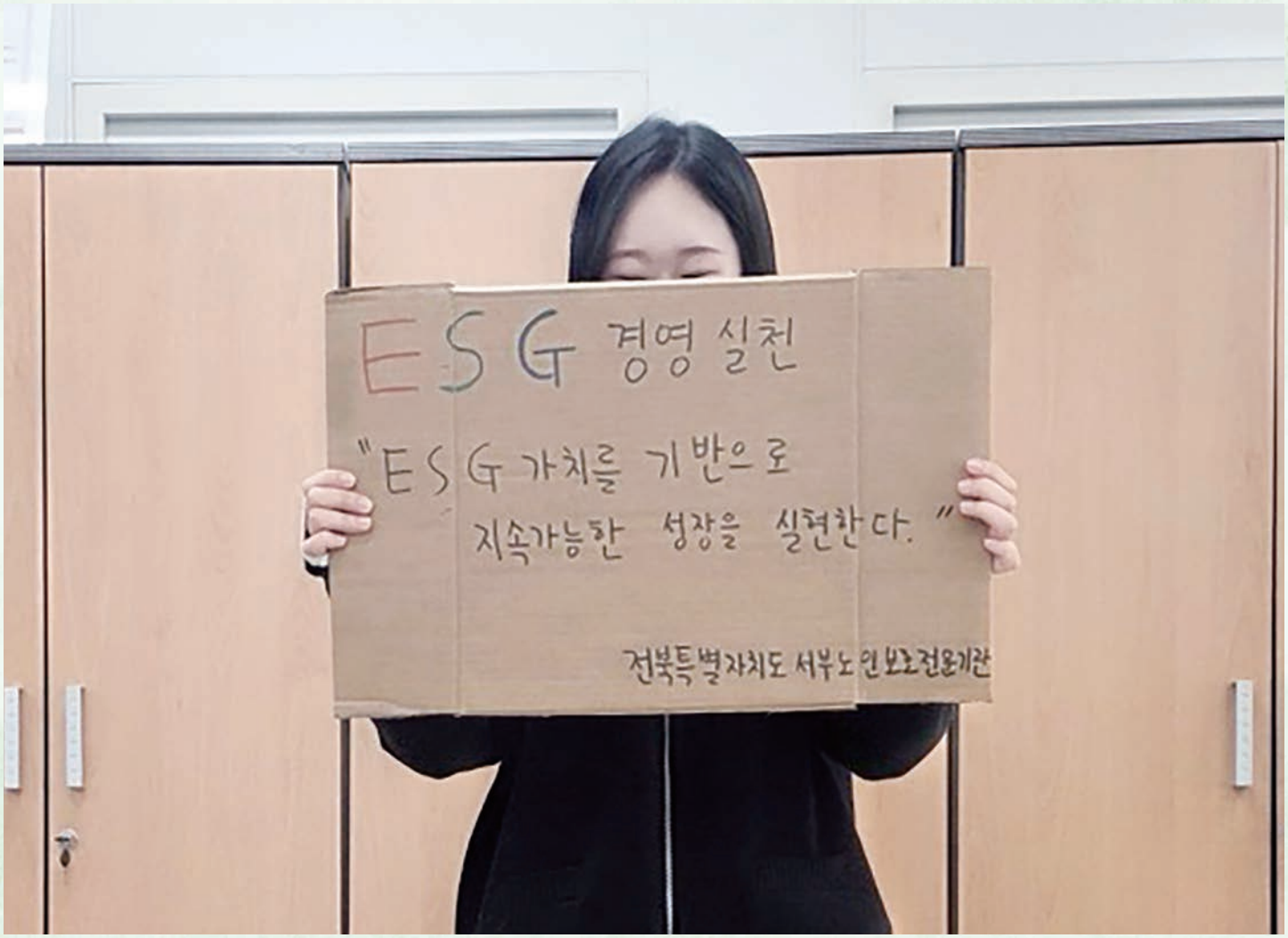
결과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 ESG 경영 실천서 낭독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의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강화했다.
- 기관의 ESG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 참여도를 높였다.
- 전 직원이 행동 중심의 ESG 실천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작은 기관에서 시작된 이 선언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았다. 직원들의 마음속에 “ESG는 곧 우리의 일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이는 곧 지역사회로 확산 되었다.

사례의 의의

- 환경(Environment): 탄소저감, 자원순환, 환경정화 활동 참여
- 사회(Social): 직원들의 ESG 의식 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페인
- 지배구조(Governance): 윤리경영과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ESG 경영 실천
"ESG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ESG 스토리 5

“아이들과 함께한 작은 걸음, 지구를 살리는 큰 발걸음”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밝은마음키움터)에서는 2025년 봄,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름하여 ‘줍깅(플로깅)’. 걷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의미와 ESG 실천의 가치를 몸소 느끼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첫날, 돌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플로깅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을 던졌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곧 답을 내놓았다.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센터 주변인 미룡주공1단지가 활동 무대였다. 아이들은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운동화를 신은 채 하나둘 거리로 나섰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집게를 휘두르던 아이들이, 길바닥에 널린 담배꽁초와 생활 쓰레기를 발견하자 표정이 달라졌다. “왜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지?”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곧 “앞으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었다. 활동이 끝난 뒤, 아이들은 센터로 돌아와 주운 쓰레기를 분리수거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원 순환의 의미까지 배우는 시간이 된 것이다. 더운 여름날에는 땀을 흘리며 힘들어했지만,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쓰레기를 모았다. 가을에는 산책처럼 즐기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다가 쓰레기를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집게를 들었다.

돌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한 작은 행동이 지구를 살리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감을 나눴다. “앞으로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래요.” “집에서도 분리수거를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2025년 한 해 동안 총 6차례 이상 진행된 줍깅 활동은, 참여 아동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ESG 실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센터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확산된 이 작은 실천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 영역에서 ESG 가치를 구현한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사례의 의의

- 환경 보호: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습관화
- 사회적 가치: 아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정화 및 인식 개선
- 지배구조: 투명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기록 관리

NEW KIDS STAR
I♥JELI

ESG 스토리 ⑥

생활 속 작은 실천, “환경을 지키는 즐거움”

장수군가족센터

사례1. 기후환경 위기 대응 - “잔반 Zero 요리교실”

장수군가족센터는 아이들에게 기후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활용해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잔반 없는 식습관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선 환경교육이었습니다.

편식하던 아이들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끝까지 먹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식판과 수저를 사용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껍질과 부산물은 농가에 전달해 퇴비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환경을 지키는 즐거움”을 알려주었고, 지역사회에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의 생활화라는 ESG 가치를 확산시켰습니다.

사례2. 사회적 책임 실천 - “모두 사랑 나눔 가족봉사단”

장수군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환경미화, 어버이날 봉사,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6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37명이 참여하며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가족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했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나눔의 기쁨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 “봉사자로서 지역행사에 참여해 성취감을 느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와 결속을 강화하는 ESG의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례3. 자원 재활용과 평생교육 - “헌책아트 지도사 과정”

헌책은 버려지는 자원일까요? 장수군가족센터는 헌책을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헌책아트 지도사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책을 접어 작품을 만들며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배우고,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역량이 향상되었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며 교류와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헌책이 단순히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임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ESG 가치 확산의 의미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라는 ESG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기후위기 대응
- 가족이 함께 나눈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강화
- 헌책을 예술로 바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

이 사례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ESG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사회서비스기관
ESG 활성화지원 공모사업
공모 선정작 모음

군산시니어클럽

금암노인복지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동산사회복지관

바다의향기

순창시니어클럽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

임실시니어클럽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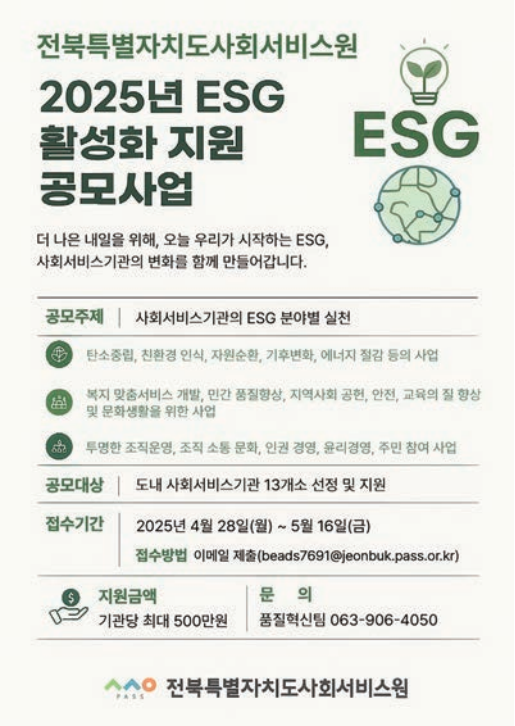
전주시니어클럽

정읍천사마을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

효자시니어클럽

현장의 ESG 우수사례 발굴 및 파급 위한 공모전 추진



1 공모 접수
홈페이지 공고 및 이메일 접수

2 1차 심사
서류 적격 내부심사

3 2차 심사
외부심사

4 결과 발표
홈페이지 및 응모기관 개별 안내

연번	기관명	사업명
1	군산시니어클럽	톡talk!!, 톡talk!! 라떼와 MZ
2	금암노인복지관	달빛마루, 모두를 위한 밤의 쉼터
3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ESG활성화사업'우린, 행복파트너!'
4	동산사회복지관	Icy원해(아이시원해)
5	바다의향기	빛나는 일상 존중받는 삶
6	순창시니어클럽	순창 에코시니어공작소
7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	다시쓰는 우리 이야기 (ESG 실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8	임실시니어클럽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새활용 탐험대'
9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ESG 가치확산 프로젝트
10	전주시니어클럽	세대를 잇는 Green 체험교실
11	정읍천사마을	소통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ESG활동
12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너도 나도 에코시민
13	효자시니어클럽	다시, 페트의 삶'순환의 첫걸음'

군산시니어클럽

PASS

세대 간 존중과 소통 역량 향상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이끈 ESG 사례

톡talk!! 톡talk!! 라떼와 MZ

라떼와 MZ, 세대가 함께 만든 ESG 소통문화

군산시니어클럽의 회의실.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어르신들의 경험담과 MZ세대 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2025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진행된 「톡talk!!, 톡talk!! 라떼와 MZ」 사업은 세대 간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ESG 거버넌스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ESG 교육, 협업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 교육, 업사이클링 체험, 안전모니터링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직원 38명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180명이 함께했다. 성과는 뚜렷했다. ESG 인식 변화율 84%, 소통 이해도 88%, 세대 간 관계 강화 89%, 프로그램 만족도 96% 등 대부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PREP 보고법과 비폭력 대화 방식이 실무회의에 적용되며 조직문화 개선 사례가 3건이나 도출되었다.

라떼와 MZ가 말하는 변화

노인 일자리 참여자 "회의에서 발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니,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직원 "타 세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응답률이 62%에서 89%로 올랐다는 결과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업사이클링 체험에서 세대가 함께 만든 작품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업 담당자 "라떼와 MZ가 함께하는 대화 속에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와 자존감을, 지역사회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ESG 문화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ESG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ESG 인식 변화율 84% (목표 80%)
- 소통 이해도 88% (목표 80%)
- 세대 간 관계 강화 89% (목표 80%)
- 프로그램 만족도 96% (목표 85%)
- 조직문화 개선 사례 3건 (목표 2건)

군산시니어클럽

톡talk!! 톡talk!! 라떼와 MZ

Q.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조직 내 거버넌스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ESG 교육과 협업 커뮤니케이션 교육, 업사이클링 체험,
안전모니터링 활동 등을 운영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회의에서 발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의견을 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타 세대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협업이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Q.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SG 인식 변화율, 소통 이해도, 프로그램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사례도 3건이나 나왔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ESG 소통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해 직원 퍼실리테이터를 성장시키고, 회의 요약 공유와
피드백 문화를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암노인복지관

PASS

주민 주도형 문화활동 모델을 구축하고, 세대·문화 통합과 ESG 가치확산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

달빛마루, 모두를 위한 밤의 쉼터

여름밤 꾀꼬리공원 야외무대

어르신의 시낭송이 끝나자 청년들의 버스킹이 이어지고, 다문화 주민들의 전통 공연이 무대를 물들인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며 세대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함께 즐긴다.

금암노인복지관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달빛마루, 모두를 위한 밤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ESG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주민기획단 10명이 직접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하며, 노년·청년·다문화 세대가 함께 준비한 야간문화행사를 두 차례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공연뿐 아니라 먹거리, 전통놀이, 다문화 의상체험, 네일아트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었고,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도 병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활동"의 의미를 체감하며 ESG 가치가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달빛마루, 현장의 목소리

청년위원 안○현 "공연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부스를 도왔습니다. 어르신과 다문화 참여자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위원 김○곤 "무대에 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참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세대 간 교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느꼈습니다."

다문화 주민 임○은 "전통의상 체험을 준비했는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서로가 이웃처럼 느껴졌습니다."

담당자 김○영 "행사 당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우리 지역에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주민들에게는 공동체성과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에는 ESG 문화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주민기획단 참석률 100% (목표 80%)
- 행사 참여자 211명 (목표 200명, 106% 달성)
- 만족도 평균 91% (목표 80%, 114% 달성)
- ESG 아이디어 다수 도출 (목표 초과)

금암노인복지관

달빛마루, 모두를 위한 밤의 쉼터

Q.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복지관이 어르신만의 공간이 아니라,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길 바랐습니다.

Q.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공연 아이디어를 내고 체험부스를 도왔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무대에 선 어르신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대 간 교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느꼈습니다.

전통의상 체험을 준비했는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서로가 이웃처럼 느껴졌습니다.

Q.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행사 참여자 211명, 만족도 91% 등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점이 큰 성과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어르신 장기자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다문화 교류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ESG 기반 주민참여형 복지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PASS

환경 · 사회 · 거버넌스 전 영역을 아우르며 지역사회와 함께 ESG 가치를 확산시킨 사례

ESG 활성화 사업 '우린, 행복파트너!'

우린, 행복파트너! ESG로 엮은 지역의 변화

남원의 숲길. 장애인과 주민, 복지관 직원들이 함께 줍깅을 하며 웃음을 나눈다.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이 아니라, ESG 실천의 장이었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5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린, 행복파트너!」라는 이름으로 ESG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ESG 교육에는 유관기관 종사자, 주민, 이용자 등 136명이 참여해 사회복지 현장에 ESG를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숲 체험과 줍깅 활동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높였고, 직접 만든 빵과 밑반찬을 요양원·복지시설·소방서에 전달하며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했다. 중창단 공연은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정서적 교류를 확대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조직 진단을 실시해 소통 구조와 협업 문화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린, 행복파트너! 현장의 목소리

교육 참여 주민 "ESG 교육을 받고 나니,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숲체험과 줍깅을 하며 환경을 지키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려 합니다."

복지관 이용 장애인 "우리가 만든 빵을 요양원에 전달했을 때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복지관 직원 "조직진단을 통해 직원들 간 소통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함께 개선점을 찾으니 신뢰가 쌓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자립과 자존감을, 지역사회에는 포용과 상생의 문화를,
모두에게는 ESG 가치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ESG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ESG 교육 참여자 136명
- 친환경 프로그램 3회 운영
- 지역사회 공헌활동 4회 → 빵·밑반찬 전달, 중창단 공연
- 조직진단 1회 → 직원 참여형 개선과제 도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린, 행복파트너!

Q.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복지관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ESG 실천의 중심 플랫폼이 되길 바랐습니다.

Q.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ESG 교육을 통해 136명이 참여했고, 숲체험과 줍깅으로 환경보호를 체험했습니다.
또 빵과 밑반찬을 만들어 요양원과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빵을 전달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Q. 조직진단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소통 구조와 협업 문화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함께 찾으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ESG 교육과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 공유하고, 친환경 실천 그룹을 지원하며,
조직문화 워크숍을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동산사회복지관

PASS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한 ESG 사례

‘Icy원해(아이시원해)’

폐현수막에서 냉감조끼로, 아이시원해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노점상인과 폐지수거 어르신들은 늘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동산사회복지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냉감조끼 제작 프로젝트 ‘Icy원해’를 시작했다.

소잉봉사단 3명이 모집되어 재봉틀 교육을 받고 샘플 조끼를 제작했다.

이후 주민 42명이 참여한 소잉팩토리에서 총 30벌의 냉감조끼가 완성되었다.

조끼는 아이스팩과 핫팩을 넣어 여름과 겨울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0월, 복지관은 노점상인과 폐지수거 어르신 30명에게 조끼를 전달하며 온열·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병행했다.

“폭염에도 덜 힘들다”는 근로자의 반응은 이 사업의 가치를 증명했다.

주민들이 말하는 Icy원해

소잉봉사단 참여자 “재봉틀을 처음 배웠는데, 내가 만든 조끼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주민 참여자 “폐현수막이 이렇게 다시 쓰일 줄 몰랐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사람도 돕는다는 게 큰 의미였어요.”

폐지수거 어르신 “여름에 조끼를 입으니 덜 덥고, 겨울에는 핫팩을 넣어 따뜻하게 일할 수 있어요.”

복지관 관계자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환경 인식과 나눔의 가치를, 어르신들에게는 자존감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ESG 문화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ESG 실천이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소잉클래스 10회, 만족도 100%
- 냉감조끼 30벌 제작·전달
- 캠페인 4회 운영, 근로자 만족도 89.5%
- 주민 역량강화 및 자발적 참여, ESG 인식 확산

동산사회복지관

Icy원해(아이시원해)

Q.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름철 야외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을 줄이고,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재봉틀 교육을 받고 샘플 조끼를 만든 뒤, 주민들과 함께 30벌을 제작했습니다.

Q. 근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조끼 덕분에 여름에 덜 힘들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Q.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민들이 재봉기술을 배우며 역량을 강화했고,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돌봄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의류 리폼과 소품 제작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바다의 향기

PASS

장애인 근로자의 일상을 사회적 가치로 재조명하며, 자존감 향상과 인식 개선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

빛나는 일상, 존중받는 삶

빛나는 일상, 존중받는 삶

부안의 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들이 작업대 앞에서 집중하며 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바다의향기는 이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해 "일하는 삶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영상은 박람회와 기념식에서 상영되었고, 시민들은 장애인근로자의 성취감과 자립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제작된 리플릿 1,000부는 사회복지의 날과 각종 행사에서 배포되며 포용·상생·자립이라는 ESG 가치를 확산시켰다.
홍보부스 운영과 콘텐츠 상영을 통해 약 1,0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기관은 ESG 실천 사례로 벤치마킹 문의를 받으며 지역사회 포용문화 확산의 중심에 섰다.

우리의 일상이 빛나는 이유

참여 장애인근로자 "내가 일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 참여 시민 "리플릿 속 메시지를 읽으며,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다는 걸 시민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사업 담당자 "영상 상영 후 기업 관계자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여 장애인근로자 "이제는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받는다는 걸 실감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일상이 영상과 나눔으로 재조명되며,
자존감 향상 · 사회적 인식 개선 · ESG 가치 확산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일상'이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상영
- 리플릿 1,000부 제작·배포
- 박람회·기념식·판매행사 등 홍보부스 운영 → 약 1,000명 이상 노출
- 장애인근로자 자존감·소속감 강화,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바다의 향기

빛나는 일상, 존중받는 삶

Q.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기관장) 장애인근로자의 일상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사업 담당자) 근로자의 근무 모습을 촬영해 영상으로 제작했고,
리플릿 1,000부를 만들어 행사에서 배포했습니다.

Q. 참여 근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장애인근로자) 내가 하는 일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박수쳐줄 때 자존감이 커졌습니다.

Q.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시민) 영상과 리플릿을 보고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관장)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인식개선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타 지역 기관과 협력해 ESG 기반 자립홍보 체계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순창시니어클럽

PASS

폐현수막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환경보호·노인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ESG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한 사례

순창에코시니어 공작소

순창에코시니어 공작소, 폐현수막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

순창의 여름, 시니어클럽 작업실에는 재봉틀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봉제 기술을 가진 어르신들이 폐현수막을 세척하고 건조한 뒤, 앞치마와 파우치, 돗자리로 재탄생시키고 있었다. 버려질 자원이 다시 쓰이는 순간, 환경(E)·사회(S)·거버넌스(G)를 아우르는 ESG 실천이 이루어졌다. 사업은 순창장류축제와 맞물려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축제 현장에 마련된 ESG 체험부스에는 800여 명이 참여해 병뚜껑 키링을 만들고, 완성품을 전시하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성과는 눈에 띄었다. 앞치마 200개, 파우치 150개, 돗자리 70개, 키링 1,800개 제작. 어르신들은 봉제기술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며 자존감을 높였고, 주민들은 친환경·업사이클링 활동을 생활 속에서 경험했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순창에코시니어 공작소

참여 어르신 "평생 배운 봉제기술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내가 만든 앞치마가 환경을 지키고, 또 누군가에게 쓰인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참여 어르신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병뚜껑 키링을 만들었어요. 작은 체험이지만 자원순환의 의미를 쉽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축제 참여 주민 "폐현수막이 돗자리로 변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이 다시 쓰일 수있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시니어클럽 관계자 "어르신들이 만든 제품을 취약계층과 공공기관에 나눌 예정입니다. 단순한 제작을 넘어 사회적 나눔으로 이어지는 점이 감동적입니다."

"폐현수막이 앞치마와 가방으로 재탄생하며, 자원순환과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포용이 동시에 실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활용의 가치'가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성과 한눈에

- 앞치마 200개, 파우치 150개, 돗자리 70개 제작
- 체험용 키링 1,800개 제작·배포
- 축제 체험부스 참여자 800명
- 친환경 노인일자리 모델 정착, 지역사회 ESG 인식 확산

순창시니어클럽

순창에코시니어 공작소

Q.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폐현수막이 방치되는 것을 보며, 어르신들의 봉제기술을 활용해 자원순환과 일자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350장의 폐현수막을 세척하고 건조한 뒤, 앞치마와 파우치, 돗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축제에서는 병뚜껑 키링을 1,800개 제작해 주민들과 나눴습니다.

Q.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이들과 함께 키링을 만들며 ESG를 배웠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Q.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앞치마 200개, 파우치 150개, 돗자리 70개를 제작했고, 축제 참여자만 800명에 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ESG 인식도 크게 확산 됐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해 타 기관과 공유하고, 제작물을 취약계층과 공공기관에 무상 배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노인일자리 모델을 확산시켜 ESG 사회공헌사업으로발전시키겠습니다.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

PASS

어르신들이 ESG 실천의 주체로 성장해 환경 보호와 나눔, 공동체 강화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

다시 쓰는 우리 이야기

다시쓰는 우리 이야기, 어르신이 만든 ESG의 길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한 공예실.
어르신들이 헌옷과 고무신, 이불천을 펼쳐놓고 화분케이스와 색동주머니를 만드는 모습이 분주하다. 이들은 단순히 손재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나눔을 실천하는 ESG 활동의 주체였다.
2025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진행된 「다시쓰는 우리 이야기」 프로그램은 교육·실습·캠페인·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어르신들은 ESG 개념을 배우고, 업사이클링 작품 111점을 제작했으며, 일부는 아동시설에 기부해 세대 간 연대를 실현했다.
또한 지역 캠페인을 통해 주민 80여 명에게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ESG 문화를 확산시켰다. 참여자들의 ESG 인식은 11% 향상되었고, 만족도는 평균 4.8점, 재참여 의향은 92%에 달했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다시쓰는 우리 이야기

참여 어르신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분리배출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참여 어르신 "헌옷으로 만든 색동주머니를 손녀에게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더군요. 나눔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캠페인에서 주민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며 ESG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대가 함께 배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아동시설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옷이 색동주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환경 보호와 세대 간 나눔,
그리고 공동체 강화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ESG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총 12회기 운영, 111점 작품 제작
- 참여 어르신 13명 전원 완주, 출석률 80% 이상
- ESG 인식도 11% 향상, 만족도 4.8점
- 캠페인 참여 주민 80여 명, 일부 작품 아동시설 기부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

다시 쓰는 우리 이야기

Q.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환경과 나눔의 주체로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헌옷과 고무신으로 화분케이스와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작품 일부는 아동시설에 기부했습니다.

Q. 주민들과의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캠페인을 열어 주민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함께 비누와 세제를 만들며 ESG 가치를 나눴습니다.

Q.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SG 인식이 높아지고, 자존감도 회복됐습니다. 손녀에게 선물한 색동주머니가 큰 자랑이 되었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2차년도에는 생활 속 ESG 실천가를 양성하고,
3차년도에는 지역사회 ESG 활성화 단계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임실시니어클럽

PASS

어르신이 환경교육 전문가로 성장해 세대 간 연대와 ESG 실천을 확산시킨 사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새활용 탐험대'

임실시니어클럽, 새활용 탐험대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다

임실의 여름, 노인복지관 강의실에 모인 어르신들은 환경교육 이론과 교수법을 배우며 강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일자리 참여자가 아니라, 환경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는 '새활용 탐험대'였다.

6명의 어르신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아가 동화와 시청각 자료, 환경 키트 만들기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만들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세대 간 연대를 실현했다.

또한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에서는 관광객과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분리배출 캠페인을 펼쳤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교육자료와 체험 키트를 전시하며 지역사회와 성과를 나누었다.

참여자 만족도는 95% 이상, 시니어강사 만족도는 100%에 달했다. 어르신들은 자존감과 사회적 역할 수행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ESG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새활용 탐험대

참여 어르신 "강사로 서 본 건 처음인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참여 어르신 "동화와 체험 키트를 활용하니 아이들이 쉽게 이해했어요. 환경교육이 재미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여 어르신 "관광객들에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주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교육자료와 키트를 보니,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환경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와의 연대, 자존감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ESG 문화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새활용 탐험대'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역량강화 교육 6회, 어르신 전원 수료
- 찾아가는 환경교육 6회, 아동 120명 참여
- 환경캠페인 6회, 군민·관광객 200명 참여
- 성과공유회 21명 참석, 홍보 게시물 15건
- 만족도: 시니어강사 100%, 교육프로그램 95%

임실시니어클럽

새활용 탐험대

Q.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이 단순한 일자리 참여자가 아니라,
환경교육 전문가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길 바랐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환경교육 이론과 교수법을 배우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와 체험형 교육을 했습니다.

Q. 주민들과의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에서 관광객들에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용법을 알려주며
캠페인을 했습니다.

Q.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참여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역할 수행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고,
후속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기관도 생겼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환경 강사 심화 과정과 ESG 지도자 과정을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 외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PASS

어르신들이 ESG 가치 실현의 주체로 성장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끈 모범적 모델

선배시민, ESG 가치확산 프로젝트

선배시민, ESG로 마을을 바꾸다

장수군의 여름,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모여 커피찌꺼기를 말리고 폐현수막을 자르고 있었다. 이들의 손끝에서 탈취제와 친환경 세제, 앞치마와 가방이 만들어졌다.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지역사회 ESG 가치 확산의 첫걸음이었다. 복지관은 어르신 10명을 중심으로 '선배시민 ESG 가치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어르신들은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기획과 운영의 주체였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농약병과 폐건전지를 모아오도록 안내했으며, 지역축제에서는 친환경 체험 부스를 운영해 379명의 주민이 비누와 세제를 직접 만들어보았다.

성과는 뚜렷했다. 리사이클링 활동 94% 달성, 파트너십 11개 기관 구축, 주민 인식개선 활동 목표 대비 125% 달성.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자기효능감과 공동체 의식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ESG

참여 어르신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니, 마을이 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어르신 "커피찌꺼기를 모아 탈취제를 만들었어요. 작은 손길이지만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참여 어르신 "폐현수막으로 앞치마와 가방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좋아하시더군요. 버려질 자원이 다시 쓰이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축제에서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세제를 만들며 퀴즈도 진행했어요.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배 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분리수거함에 농약병과 폐건전지를 가져다주면서, 나도 환경을 지키는 데 동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세제와 업사이클링 작품은 환경 보호와 자존감 향상, 주민 인식 개선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ESG 실천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리사이클링 활동 94% 달성
- 분리수거 참여 주민 234명
- 지역축제 인식개선 활동 5회 (목표 대비 125%)
- 친환경 파트너십 11개 기관 구축 (목표 대비 122%)
- 어르신 자기효능감 +3.3점, 공동체 의식 +3.5점 향상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선배시민, ESG 가치확산 프로젝트

Q.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이 단순히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길 바랐습니다.

Q.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커피찌꺼기를 모아 탈취제를 만들고, 폐현수막으로 앞치마와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또 분리수거함을 관리하며 주민들에게 참여를 권유했죠.”

Q.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축제에서 친환경 체험을 해보니 환경 보호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앞장서니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더군요.

Q.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리사이클링 활동과 파트너십 구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어르신들의 자기효능감과 공동체 의식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마을 단위로 확대해 이장과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커피찌꺼기 자원화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ESG 지도자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도 구축하려 합니다.

전주시니어클럽

PASS

환경교육을 통해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ESG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킨 사례

세대를 잇는 Green 체험교실

세대를 잇는 Green 체험교실

전주의 한 유치원 교실.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재활용 교구를 만지며 분리배출을 배우고 있다. 그 옆에는 시니어 강사가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지도한다. “이 병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며 답한다.
전주시니어클럽은 2025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세대를 잇는 Green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유치원 · 어린이집 아동 1,160명이 참여한 60회의 환경교육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되었다.
시니어 전문강사 15명이 교안을 작성하고 교구를 제작해 아동들에게 자원순환과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체험형으로 전달했다. 교육 결과, 아동들의 환경 인식과 실천 능력이 향상되었고, 시니어 강사들은 자존감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Green체험교실, 현장의 목소리

시니어 강사 “아이들이 재활용 교구를 직접 만지며 배우는 모습을 보니, 환경교육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여 아동 “처음엔 낯설었지만 강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분리배출이 쉬워졌어요.”

참여 교사 “아이들이 환경을 배우면서 동시에 어르신들과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시니어 강사 “강사로 활동하면서 제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와 자존감을, 지역사회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나눔의 문화를,
모두에게는 ESG 가치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ESG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환경교육 60회, 아동 1,160명 참여
- 교구 10세트 제작·활용
- 아동 환경 인식·자원순환 실천 능력 향상
- 시니어 전문강사 15명 참여 → 노인일자리 모델 확립

전주시니어클럽

세대를 잇는 Green 체험교실

Q.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니어 강사들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교안을 작성하고 교구를 제작해 아이들과 함께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을 체험형으로 교육했습니다.

Q.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첫 대면에서 아동들이 낯설어 하며 참여도가 낮았던 점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대면 과정을 도입해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높였더니 이후 교육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동들은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교육이 반복될수록 환경보호 실천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강사들도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자신감이 생겼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Q.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이들의 환경 인식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시니어 강사와의 교류가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 유치원과 협약을 맺어 프로그램을 정규화하고, 초등학생 · 다문화 ·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ESG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읍 천사마을

PASS

의사소통 약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포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교육 · 서포터 양성 ·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ESG 사회 분야 실천 모델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

소통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ESG 활동

정읍천사마을, 소통으로 엮은 포용의 사회

정읍의 여름, 한 사회복지관 강의실에는 다양한 기관 종사자와 시민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주제는 조금 특별했다. “의사소통 권리와 조력인의 역할”. 장애인과 소통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였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수어와 촉수화, 손담 같은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를 배우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장애인과 대화할 때 막막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읍천사마을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의사소통 서포터’를 양성했다.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이해하기 쉬운 자료, 비전자식 도구, 전자식 도구 활용까지 다양한 방법을 체험하며 시민과 종사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교육의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됐다. 사전·사후 조사 결과, 의사소통 이해·공감은 19.5% 향상, 네트워크 필요성 인식은 16.8% 향상, 네트워크 효과성 인식은 13.8% 향상됐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한마당 축제와 정읍시 재능나눔 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의사소통 약자의 권리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했다.

정읍천사마을,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사회

“말이 통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교육 참여 시민 수어와 촉수화, 손담 같은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를 배우며 장애인과의 대화가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도구를 직접 써보니 장애인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AAC와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전자식 도구 활용까지 다양한 방법을 체험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축제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런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작은 홍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읍천사마을 관계자 장애인거주시설 한마당축제와 정읍시 재능나눔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의사소통 약자의 권리를 알렸다.

참여 시민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정읍이 먼저 시작했지만, 이 흐름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정읍천사마을은 소통약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ESG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기관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과 한눈에

- 총 11개 사회복지기관 참여, 연인원 184명 교육 참석
- 의사소통 이해·공감 +19.5%, 네트워크 필요성 인식 +16.8%, 네트워크 효과성 인식 +13.8% 향상
- 시민·종사자 모두가 '소통하는 사회' 가치에 동참

정읍 천사마을
소통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ESG 활동

Q.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강사진 섭외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고, 교육생 모집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권리와 조력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수어와 손담 같은 새로운 도구를 직접 체험해보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내가 소속된 기관에 다양한 의사소통을 소개하고 싶다'는 응답이 크게 향상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에게 추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현장에서 의사소통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읍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 사회복지기관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소통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

PASS

발달 장애인과 주민이 '에코시민'으로 동행하며, 환경정화와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 지역상생형 ESG 모델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든 생활 속 ESG 실천 이야기 “너도 나도 에코시민”

해냄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환경으로 엮은 포용의 사회

전주의 여름,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강당에는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주제는 조금 특별했다. “환경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실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환경을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였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과 장애인들은 EM 흙공을 빚으며 환경정화의 원리를 배우고, 호성동과 송천동, 하기지구, 오송제 등지에서 플로깅 활동을 이어갔다.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센터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에코시민 서포터’를 양성했다. 마리모 보틀, 씨글래스 무드등 같은 재활용 공예 활동을 통해 ESG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새활용센터 견학에서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직접 확인했다.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됐다. 플로깅 활동 5회, EM 흙공 300개 제작·배포, 생태 교란종 퇴치 활동 1회, 주민 30명 이상이 참여한 ESG 데이 선서까지… 발달장애인과 주민이 함께 만든 결과였다.

센터는 축제와 캠페인에서도 시민들과 만났다.

ESG 데이에서는 주민 30명이 함께 선서문을 작성하며 “우리 모두 에코시민”임을 선언했고, 씨글래스 무드등을 제작·배포하며 환경보호와 장애인식 개선을 동시에 알렸다.

해냄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모두가 함께하는 에코시민 사회

참여 시민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발달장애인 참여자 “쓰레기를 줍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키는 시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역주민 멘토 “공예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ESG를 실천하니,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장애인에게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포용과 나눔의 문화를,
모두에게는 ESG 가치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성인 발달장애인 16명, 주민 멘토 5명 참여
- 플로깅 활동 5회, 생태 교란종 퇴치 1회
- EM 흙공 300개 제작·배포
- 주민 30명 이상 참여한 ESG 데이 선서
- 씨글래스·마리모 공예 활동으로 재활용 체험 및 배포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너도 나도 에코시민

Q.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주체가 되도록 교육과 실천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었나요?

처음에는 ESG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환경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는 EM 흙공을 만들고, 하천에 던져 수질 개선을 돕기도 했습니다. 또 호성동, 송천동, 하가지구, 오송제 등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Q. 지역주민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저희 5명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며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공예 활동에서는 씨글래스 무드등을 함께 만들었고, ESG 데이에서는 30명 이상이 모여 에코시민 선서를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Q. 활동을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플로깅 활동은 총 5회, EM 흙공은 300개 제작·배포했습니다. 생태 교란종 퇴치 활동도 진행했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예 활동과 ESG 데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ESG 가치를 확산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발달장애인들이 환경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함께 흙공을 만들면서 세대와 장애를 넘어선 협력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지역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해 플로깅과 ESG 가치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풀뿌리 ESG 시민 공동체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효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와 ESG 자원순환을 결합해 환경 · 사회 ·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전주형 ESG 모델

다시, 페트의 삶 '순환의 첫걸음'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다시 태어난 페트병의 삶

전주의 한 도서관 입구.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놓여 있고,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수거함을 관리한다. 이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2025년 여름부터 시작된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의 ESG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50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2인 1조로 수거함을 관리하며 월 평균 150kg의 투명페트병을 수거해 플레이크로 재활용했다. 이렇게 모인 자원은 다시 의류섬유와 플라스틱 용기로 태어났고, 수익금 102만 원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기부되었다. 사업의 성과는 수치로도 뚜렷했다. CO_2 약 375kg 감축, 원유 285kg 절감, 에너지 160~190kWh 절감. 신재 PET 생산 대비 60~70% 수준의 탄소·에너지 절감율을 기록하며 환경적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산업박람회와 지역 캠페인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알리고, 커피찌꺼기 탈취제를 나누며 다양한 자원순환 방법을 소개했다. 앞으로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은 참여자를 확대하고, 전주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9곳으로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주시 지원을 받아 투명페트병 작업장을 건축하고, 블랙야크소·전주휴비스 등 기업과 연계해 수익을 창출해 지역사회 나눔복지로 연결할 예정이다.

순환의 첫걸음, 어르신들이 만든 ESG 이야기

참여 어르신 "우리가 모은 페트병이 다시 쓰이고, 그 수익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매일 수거함을 관리하며 깨끗한 페트병을 모읍니다. 우리가 모은 병이 다시 쓰이고, 그 수익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참여자 교육생 "처음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주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캠페인 참여자 "산업박람회에서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을 알리며 커피찌꺼기 탈취제를 나눠줬습니다. 작은 홍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효자시니어클럽의 활동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ESG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노인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 나눔까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순환의 첫걸음'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성과 한눈에

- 참여자 및 연계 인원 총 2,164명
- ESG 페트병 수거함 25곳 설치·관리
- 월 평균 150kg 투명페트병 플레이크 생산
- 수익금 102만 원 창출 → 소외계층·저소득층 기부
- CO_2 375kg 감축, 원유 285kg 절감, 에너지 160~190kWh 절감

효자시니어클럽

순환의 첫걸음

Q.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최근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가치가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업을 고민하다가, 투명페트병을 수거 · 재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페트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5%가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투명페트병뿐 아니라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탈취제 등 다양한 자원순환 방법을 접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9개 전체로 ESG 사업을 확산시켜 지역사회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효자동에 투명페트병 작업장을 건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블랙야크, 전주휴비스 등 기업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사회 나눔복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 현장
ESG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모음

최우수작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우 수 작	임실지역자활센터
장 려 작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특 별 작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완주시니어클럽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정읍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 현장의 ESG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공모전 추진

1 공모 접수
홈페이지 공고 및 이메일 접수

2 1차 심사
서류적격 내부심사

3 2차 심사
외부심사

4 결과발표
홈페이지 및 선정기관 개별 안내

5 시상
성과보고회 진행시 당선작 시상

연번	구분	기관명	사업명
1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애인복지관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모두의 우리를 위한 ESG 지원'
2	우수	임실지역자활센터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지원 '세움'의 자립과 성장 2. 어머님맛집의 행복두끼 도시락 지역아동 결식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실현
3	장려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주민참여형 환경 실천 '두번 쓰는 현수막, 주민과 지구를 잇는 ESG 실천'
4	특별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청년 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실험하는 노인복지관 기반 세대공존 · 문화실천 모델 '한울랩'
5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다회용기 · 아이스팩 자원순환 사업
6		완주시니어클럽	버려지는 커피, 지구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다
7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투이지!(Together 함께하니, Easy 쉬워진 ESG) 따뜻하게 커진 변화
8		정읍시니어클럽	사각지대 없는 마을, 노인일자리로 채운 안전과 돌봄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최우수작

모두의 우리를 위한 ESG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의 지속가능경영 이야기 '환경은 장애인에게도 권리입니다'

기후위기, 모두의 과제

"환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기관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장애인의 환경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ESG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에서 시작된 변화

탄소중립 교육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기관별 욕구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드라이가든 만들기, 천연비누 체험 등은 장애인들에게 환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만족도는 97%를 넘었습니다.

새활용 키트, 자원의 재발견

버려진 양말목이 도어벨 리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개 기관, 120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새활용 키트 지원사업은 단순한 공예 체험을 넘어 자원의 가치와 자립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에서 시작된 변화

탄소중립 교육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기관별 욕구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드라이가든 만들기, 천연비누 체험 등은 장애인들에게 환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만족도는 97%를 넘었습니다.

ESG 행복플리마켓, 모두의 축제

복지관 앞마당에 펼쳐진 25개의 부스. 장애인생산품 판매, 친환경 체험,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이벤트까지… 391명의 장애인과 주민이 함께한 ESG 행복플리마켓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모든 가치를 담아낸 축제였습니다.

성과와 앞으로의 길

- ESG 교육 참여자 만족도 97.4%
- 새활용 키트 만족도 4.8점 이상
- 플리마켓 참여자 만족도 4.28점

작은 정원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활용 키트 지원을 확대하고, ESG 행복플리마켓을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우리를 위한 ESG 지원"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체험하고, 나누며 만들어낸 지속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정원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우리를 위한 ESG 지원

Q. ESG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은 모두의 과제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저는 드라이가든 만들기가 제일 좋았어요. 물을 적게 쓰면서도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환경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Q. 새활용 키트 지원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양말목으로 도어벨을 만들었는데, 장애인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며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만족도가 4.8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Q. ESG 행복플리마켓 현장은 어땠나요?

장애인 생산품도 사고, 친환경 체험도 하고, 캠페인에도 참여했어요.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였죠.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새활용 키트 지원을 더 확대하고, ESG 행복플리마켓을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ESG 실천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임실지역자활센터

우수작

사례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지원 - '세움'의 자립과 성장

시작 - 작은 의지에서 큰 도약으로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집을 수리하는 사업단에서 일하던 참여자들은 단순한 근로를 넘어, "내 힘으로 자립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낡은 집을 고치며 쌓은 기술과 경험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세우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도전 - 기술과 자금, 그리고 첫걸음

참여자들은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창업자금 공모에 선정되어 1억 1천만 원을 확보했고, 자활기금 융자까지 연계하여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트럭과 공구를 마련하며, '세움'이라는 이름의 자활기업이 세워졌습니다.

성장 - 공공사업으로 뿌리 내리다

2024년, '세움'은 LH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견적서 작성부터 현장조사, 계약, 준공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내며 실무 역량을 키웠습니다. 창호 교체, 도배장판, 화장실 보수,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성과 - 자립의 길을 걷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3명이 창업에 성공
- 2025년 매출 2억 원 예상, 안정적 구조 확보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기반 마련

'세움'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자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함께 세운 희망의 터전입니다.

앞으로의 길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자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함께 세운 희망의 기업

Q. '세움'이라는 자활기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처음에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집을 수리하는 사업단에서 일했어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것보다,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자립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창업자금 공모에 도전하게 되었죠.

Q.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했고, 공공공사 대금이 후불로 지급되다 보니
운영자금이 늘 부족했어요. 하지만 자활기금 융자를 연계해 자재비 문제를 해결했고,
내부 교육을 강화해 기술 숙련도를 높였습니다.

Q. 지금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요?

2024년 LH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수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어요.
견적서 작성부터 준공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역량을 키웠습니다.

올해는 매출 2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구성원 역량을 더 강화하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세움'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례2. “행복두끼 도시락” 이야기

배경 -
농촌 아동의 결식 문제

농촌 지역에서 결식 우려 아동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활근로사업단 ‘어머님 맛집’은 “아이들에게 하루 두 끼의 행복을 주자”는 마음으로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 -
철저한 위생과 안전

사업 시작 전 3개월 동안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조리장과 조리기구, 작업복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검수일지와 냉장고 온도 기록을 매일 작성했습니다. 도시락은 오전에 조리해 당일 배송하며,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졌습니다.

실행 -
어머님 손맛으로 채워진 도시락

밑반찬과 주찬이 고루 담긴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돌봄의 손길이었습니다. 식자재 발주부터 조리,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자체 운영하며, 참여자들의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성과 -
아이들의 웃음, 지역의 연대

- 2022~2025년, 총 70명 아동에게 주 5회 도시락 제공
- 아동 결식 예방과 건강한 성장 지원
- 자활근로사업 매출 증가로 자립성과금 지급, 근로 지속성 확보
- 협동조합·지역기관과의 연대 강화
- 사회서비스 기반 ESG 경영 모델 확립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도시락을 나누는 따뜻한 손길은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앞으로의 길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고, 식단 품질을 고도화하며, 더 많은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전하는 사회적 연대의 상징

Q. 행복두끼 도시락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농촌 지역에서 결식 우려 아동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하루 두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뷔페식 음식점 운영 경험을 살려 도시락 제조와 배송을 맡게 되었죠.

Q. 도시락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위생과 안전입니다. 사업 시작 전 3개월 동안 철저한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검수일지 작성, 보존식 샘플 채취, 냉장고 온도 기록까지 매일 관리합니다.
배송 차량 내부 온도도 꼼꼼히 기록하고 있죠.

Q. 아이들과 지역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들이 매일 균형 잡힌 도시락을 먹으면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결식 걱정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밝아졌어요.
지역사회도 함께 참여하면서 연대가 강화된 느낌입니다.

Q.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고, 식단 품질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더 많은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해 결식 문제를 줄이고 싶습니다.
나아가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장려작

두 번 쓰는 현수막, 주민과 지구를 잇는 ESG 실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작은 공방

2022년 10월 개관한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방'을 운영해 왔다. 처음에는 재봉교육을 통해 소품을 만들고 나누는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재료비 부담으로 활동을 확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2023년 전주시 환경교육에서 주민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폐현수막이 연간 6,000톤이나 발생하며 대부분 매립·소각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봉 기술을 활용해 버려진 현수막을 다시 쓰는 길을 모색했다.

현수막의 두 번째 삶

주민들은 수거한 현수막을 재단하고 재봉하여 복지관 내 쓰레기통 커버와 장바구니를 제작했다. 쓰레기통 커버는 매일 교체할 필요가 없어 연간 16,800장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장바구니는 지역 마트와 협력해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으로 이어졌다.
덕진구청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협력해 현수막 수거와 장바구니 나눔 체계를 마련하면서, 이 활동은 단순한 공방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주민이 주도하는 ESG 실천

이 활동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
- 환경(E): 폐현수막 재활용, 비닐봉투 대체, 탄소중립 실천
- 사회(S): 주민 환경교육, 세대 통합, 공동체 활성화
- 지배구조(G): 덕진구청 협약, 주민 자율 활동, 환경사랑 서약

특히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한땀나루 봉사단'을 결성해 쓰레기통 커버와 장바구니 제작을 이어갔고, 지구의 날·환경의 날 캠페인과 연계해 활동을 홍보했다.

장애요인과 극복

처음에는 현수막 수급이 불안정했고, 재단·재봉 기술 부족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덕진구청과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했고, 전주시 새활용센터 작가와 연계해 특강을 진행하며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했다.

성과와 변화

2024년 기준으로 주민들은 연간 1,800장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했고, 3,520개의 장바구니와 쓰레기통 커버를 제작했다. 참여 주민은 연 1,848명에 달했으며, 지역 상가와 사회복지기관에 780개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자발적 실천이 늘어났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며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지역 내 ESG 가치가 확산되었다.

앞으로의 길

복지관은 주민공방 내 자율 재봉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참여자를 위한 정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폐현수막 외에도 유아내복 자투리 천 등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생활용품 제작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 학교와 기업과 협력해 ESG 실천 범위를 넓히고, '두 번째 새활용'을 지역 환경 브랜드로 육성해 SNS와 언론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 쓰는 현수막'은 단순한 재활용 활동이 아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을 배우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들어낸 참여형 ESG 실천 모델이다. 버려진 현수막이 장바구니와 커버로 다시 태어나듯, 주민들의 작은 손길은 환경을 지키고 공동체를 잇는 큰 힘이 되고 있다.

Q. 처음에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복지관에서 재봉교육을 받으며 소품을 만들었는데, 재료비 부담 때문에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환경교육에서 폐현수막이 연간 6,000톤이나 발생하고 대부분 소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배운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폐현수막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현수막을 재단하고 재봉해서 복지관 쓰레기통 커버와 장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쓰레기통 커버는 내구성이 좋아 매일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비닐봉투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장바구니는 지역 마트와 협력해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생활 속 자원순환을 실천했습니다.

Q. 활동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력이 있었나요?

덕진구청과 협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게 되었고, 농협 하나로마트와도 협력해 장바구니 나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한땀나루 봉사단'을 결성해 제작 활동을 이어갔고, 지구의 날·환경의 날 캠페인과 연계해 홍보도 강화했습니다.

Q. 활동 중 어려움은 없었나요?

현수막 재질이 두껍고 미끄러워서 재단과 재봉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수급이 불안정해 재료 확보가 어려웠죠. 하지만 전주시 새활용센터 작가님과 특강을 진행해 기술을 배우고, 구청과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Q.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800장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했고, 장바구니와 쓰레기통 커버 3,520개를 제작했습니다. 참여 주민은 연 1,848명에 달했고, 지역 상가와 사회복지기관에 780개를 배포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공동체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폐현수막 외에도 유아내복 자투리 천 같은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생활용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학교와 기업과 협력해 ESG 실천 범위를 넓히고, '두 번째 새활용'을 지역 환경 브랜드로 키워 SNS와 언론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특별작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드는 노인복지관 기반 ESG 실험실
“한울랩은 내일을 실험하는 세대공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세대공존·문화실천 모델 '한울랩'

**시작 -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찾은 해법**

군산은 지방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문화 기반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고, 어르신들은 축소된 관계망 속에서 고립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기관 미션인 "청춘의 꿈을 함께 응원한다"를 출발점으로 삼아, 세대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한울랩(Hanwool Lab)'입니다.

**한울랩 -
예술로 만나는 세대공존**

한울랩은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한 공간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공공예술을 기획·실행하는 실험실입니다. 청년예술가를 공개 모집해 지역 인프라를 조사하고, 어르신과 함께 공동기획을 거쳐, 전시·공연 등 공공예술 활동을 공동 운영합니다.

어르신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창작자로서 참여하고, 청년은 기획자이자 동료로 함께합니다. 예술은 세대와 배경을 넘어 통하는 공통의 언어가 되었고, 복지관은 관계를 기획하고 연결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했습니다.

**추진 과정 -
실험을 구조로**

한울랩은 공개모집 → 공동기획 → 공동운영 → 정규화·확산의 협업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지역 탐방과 인터뷰를 통해 공동체 의제를 발굴하고, 소규모 창작모임을 거쳐 전시·공연으로 결과를 공유하며, 성과는 기록 전시회와 아카이빙 콘텐츠로 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복지관의 일상적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애요인과 극복

청년예술가 인프라 부족: 지역 학교와 예술협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자를 확보했습니다.

세대 간 작업 방식 차이: 운영팀이 중간 매개자로 개입해 속도와 방식 조율, 안내 자료 제공으로 극복했습니다.

지역사회 인식 부족: SNS·영상 홍보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성과 - 세대가 함께 만든 예술

- 연 1회 기록 전시회를 통해 공동체 예술작품을 지역사회와 공유
- 창작 과정과 인터뷰를 영상·사진으로 제작해 SNS·유튜브 확산
- '노세놀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세대공존 프로그램 확장
- 토요 세대통합 프로그램, 어르신 놀이터 특별 절기 프로그램 등으로 내재화

그 결과, 청년 예술가는 지역에 정착할 기회를 얻었고, 어르신은 문화적 접근권과 창작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복지관은 세대공존·공동체 예술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길

- 한울랩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 예술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 인권·환경·지역 역사 등 사회적 의제를 예술로 탐구하는 프로젝트 확대
- 인근 복지관·문화기관·학교와 연계해 권역 단위 세대공존 네트워크 구축
- 공원·전통시장 등 복지관 외부로 확장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성과공유회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확산으로 피드백 구조 강화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든 한울랩은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대가 공존하며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ESG 실천 모델입니다. 예술을 통해 관계의 밀도를 되찾은 이 실험은, 군산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한울랩'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군산은 청년들이 떠나고 어르신들은 고립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복지관에서 "세대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예술을 매개로 세대가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청년들과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 주제를 정했어요.
그 후에는 전시와 공연을 준비했는데, 저희도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직접 창작자로 참여했습니다. 청년들은 기획자이자 동료로 함께 했고요.

Q.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르신들의 작업 속도와 이해 방식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영팀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고, 단계별 안내 자료를 제공해주면서
점차 맞춰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희도 세대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Q. 지역사회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SNS와 영상으로 홍보하면서 점점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전시회에 오신 분들이 "어르신이 직접 만든 작품이라 더 감동적이다"라고
말씀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매년 기록 전시회를 열어 작품과 과정을 공유했고, 창작 과정을 영상으로 아카이빙해
확산했습니다. '노세놀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세대공존 프로그램을 확장했고,
토요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어르신 놀이터 특별절기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청년예술가는 지역에 정착할 기회를 얻었고, 어르신은 문화적 접근권을 확대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인권, 환경, 지역 역사 같은 사회적 의제를 예술로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인근 복지관과 문화기관, 학교와 연계해 권역 단위 세대공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복지관 밖으로 나가 공원이나 전통시장에서도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특별작

다회용기·아이스팩 자원순환사업

“오늘 또 용기를 냈다” 군산에서 시작된 생활 속 ESG 실천 이야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작은 실험

군산은 축제와 행사,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늘어나고, 환경 부담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자활센터는 참여 주민들과 함께 일회용품 감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목표로 다회용기·아이스팩 자원순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걸음 - 세척장에서 시작된 변화

2021년, 군산시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 아이스팩 수거·세척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장 2곳에 세척장을 설치하고, 고온세척기·살균기·자연건조대까지 갖춘 위생적 공정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위생관리와 작업안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축제와 종교행사, 단체급식 현장에서 다회용기가 쓰이기 시작했고,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순환경제

처음에는 시민들이 다회용기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깨끗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또 용기를 냈다”라는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점차 다회용기 사용은 생활 속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과 - 환경, 사회, 경제가 함께 웃다

환경적 성과
- 군산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에서 다회용컵 3만 개를 세척·공급, 약 26,000개의 일회용품을 줄였습니다.
- 각종 행사와 바자회, 출장뷔페에서 다회용 도시락 용기를 도입해 폐기물을 최소화했습니다.

사회적 성과
- 지역 소상공인에게 친환경 아이스팩 17만 개 이상을 무료 제공해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 저소득층 15명 이상이 세척·회수·배송 업무에 참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제적 성과

- 2024년 기준 외부 매출 5천만 원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 친환경 아이스팩 자체 생산·납품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했습니다.
- 이 성과는 군산을 넘어 전북권으로 확산되었고, 전주·김제·진안 등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의 길 - 더 큰 순환을 향해

군산은 이제 더 큰 도전을 준비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기관·산하기관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기업체와 협력해 친환경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척·렌탈·배송 서비스로 유료 모델을 확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판매를 늘려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다회용기·아이스팩 자원순환사업은 단순한 환경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환경(E)을 지키고, 사회(S)에 일자리를 만들며, 지배구조(G)에서 지자체·기업·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생활 속 ESG 실천 모델입니다.
군산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실험은, 이제 지역을 넘어 더 큰 순환경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용기를 냈다"는 구호처럼, 주민들의 작은 용기가 지구와 공동체를 지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군산은 축제와 행사,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 부담이 심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다회용기와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사업장 두 곳에 세척장을 설치하고, 고온세척기·살균기·자연건조대까지 갖춘 위생적인 공정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한 다회용기를 회수해 세척·살균한 뒤 다시 공급하고 있어요.

또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순회 차량으로 수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다회용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깨끗할까?"라는 의문이 많았죠.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 캠페인 덕분에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용기를 냈다"라는 캠페인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제는 축제나 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Q.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초기에는 세척 비용 부담 때문에 수요처가 망설였고, 시민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약을 맺어 단가를 낮추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인식을 전환하면서 점차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Q.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군산 수제맥주축제에서만 다회용컵 3만 개를 세척·공급해 약 26,000개의 일회용품을 줄였습니다.

또 2022년부터 지금까지 17만 개 이상의 아이스팩을 세척해 소상공인에게 제공했어요. 덕분에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을 줄였고, 저희 같은 저소득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세척·렌탈·배송 서비스를 유료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주시니어클럽

특별작

완주 시니어클럽의 ESG 실천 이야기

지역 내 버려지는 커피찌꺼기,
지구를 살리고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작은 아이디어

완주 지역의 카페에서는 매일 수많은 커피찌꺼기가 배출됩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추출물은 0.2%에 불과하고, 나머지 99.8%는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이 커피찌꺼기는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처리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닌 보람 있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환경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복지관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친환경 탈취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실행 - 커피찌꺼기의 두 번째 삶

2023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이 프로젝트는 실무자 교육과 작업공간 확보, 건조기 구비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거: 지역 카페와 시니어클럽 공동체 카페에서 커피찌꺼기를 모아 주 1회 작업장으로 운반
가공: 저온창고에 보관해 부패를 막고, 열풍건조기로 수분을 제거
제작: 반죽 → 몰드로 모양내기 → 건조 → 부직포 주머니 포장
배포: 완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행사에서 무상 배포

어르신들은 좌식 작업 환경에서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하루 평균 130개, 월 1,300개의 탈취제가 생산되었습니다.

장애요인과 극복

위생 문제: 커피찌꺼기는 수분이 많아 곰팡이가 쉽게 생겼습니다. → 저온창고 보관과 빠른 건조, 즉시 배포로 해결
품질 문제: 장기 보관 시 탈취제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 건조기를 활용해 수분을 낮추고, 재고 없이 바로 배포
작업환경 문제: 고령자 맞춤형 장갑, 몰드, 전문인력 배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 제공

성과 - 환경과 사람을 함께 살리다

환경적 성과: 2025년 2월~7월까지 총 8,375개의 탈취제를 제작, 버려지던 커피찌꺼기를 자원으로 전환

사회적 성과: 25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얻음, 삶의 만족도와 건강 유지에 긍정적 효과

지역사회 기여: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기관에 무상 배포, 주민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호응도 증가

공동체 강화: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앞으로의 길

이 사업은 단순히 탈취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참여자를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

배포처를 학교, 도서관 등으로 넓혀 지역사회 연계 강화

어린이집과 연계한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세대 간 교류 촉진

커피찌꺼기로 화분 몰드를 제작해 식물 심기 체험으로 생태계 균형 교육 확대

버려지는 커피찌꺼기가 친환경 탈취제로 다시 태어나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E)을 지키고, 사회(S)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는 생활 속 ESG 실천 모델입니다. 완주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지구와 사람 모두를 살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약 2,600개의 커피전문점이 있는데, 한 곳에서 하루 2kg 이상의 커피찌꺼기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했죠.

동시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질 높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자원화해 환경을 지키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탈취제가 만들어지나요?

지역 카페에서 커피찌꺼기를 수거해 작업장으로 가져옵니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이후 열풍건조기로 수분을 제거해요. 건조된 찌꺼기를 반죽해 몰드로 모양을 내고 다시 건조기를 거쳐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 포장합니다. 하루 평균 130개 정도 생산하고, 월 1,300개를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행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Q.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커피찌꺼기는 수분이 많아 금방 부패하거나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거량을 조절하고, 수거 요일과 어르신 작업일을 맞춰 장기 보관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건조기를 활용해 내부 수분을 낮추고, 생산된 탈취제를 바로 배포해 품질 저하를 막았습니다.

Q.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든 탈취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쓰이고 환경을 지킨다고 생각하니 자부심이 생깁니다. 좌식 작업 환경이 마련되어 힘들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Q.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8,375개의 탈취제를 제작했습니다. 25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얻었고, 지역 내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기관에 무상 배포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친환경 탈취제를 사용하며 재활용 인식이 높아졌고, 공공기관에서도 호응이 컸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참여자를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배포처도 학교, 도서관 등으로 넓히고, 어린이집과 연계한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대 간 교류를 강화하려 합니다. 커피찌꺼기로 화분 몰드를 제작해 식물 심기 체험도진행해 생태계 균형을 알리는 활동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특별작

투이지! (Together 함께하니, Easy 쉬워진 ESG)
따뜻하게 커진 변화, 익산형 ESG 실천 이야기

시작 - 복지의 한계를 넘어 ESG로

익산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23%가 65세 이상,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 복지 격차까지 겹쳐 지역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한 복지서비스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복지관은 2008년부터 생활밀착형 ESG 복지 실천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성과 중심의 캠페인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지역연대, 기관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익산형 ESG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환경(E) - 노인이 주체가 된 자원순환

환경 실천은 어르신들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카페에서 모은 커피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해 방향제를 제작하고 주민들에게 나눔

연탄을 재배분해 에너지 재순환을 실현

전기차 도입으로 친환경 이동수단 전환, 탄소중립 캠페인 운영

이 활동을 통해 주민 1,200명에게 친환경 방향제가 전달되었고, 취약계층 난방복지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환경 실천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였습니다.

사회(S) - 세대가 함께하는 나눔

사회 영역에서는 세대와 계층을 잇는 나눔이 중심이었습니다.

2005년 시작된 연탄 나눔 운동, 2018년부터 이어진 사랑의 밥 한끼 나눔 운동

청소년, 자원봉사자, 기업체가 함께 참여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가치 확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랑의 집수리' 사업, 여가 활동 지원

누적 연탄 나눔은 11,000회 이상, 밥 한끼 나눔은 2,800여 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연간 5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며, 지역은 돌봄 생태계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배구조(G) - 책임과 신뢰의 운영

복지관은 ESG 기반의 운영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5회 연속 A등급 달성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다수의 우수기관 선정

지역 내 40개 이상 기관과 MOU 체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날'을 정례화해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나눔의 장 마련
2025년 남부권 분관 신설로 복지 접근성 격차 해소
이로써 복지관은 단일 기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와 극복 - 참여형 구조로의 전환

초기에는 ESG 개념에 대한 낮은 이해와 단기성과 중심의 인식이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자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노인, 청소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천의 주인공이 되면서 ESG는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성과 - 익산다운 복지의 기록

환경: 전기차 도입,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청소년 환경 캠페인으로 친환경 전환 유도
사회: 연탄·밥 한끼 나눔 운동, 감정 코칭 프로그램으로 돌봄과 정서 지원 강화
거버넌스: ESG 기반 운영체계 구축,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형성, 나눔문화 확산
어르신은 복지의 대상에서 실천의 주체로, 청소년은 수혜자에서 변화의 동반자로, 지역사회는 단절된 공간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앞으로의 길 - 더 깊고 넓게

직원 ESG 실무역량 강화 교육 정례화, 'ESG 주간' 운영으로 조직문화 전환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에코 리더 양성교육'과 세대 공감 환경활동 확대
학교·기업·주민이 함께하는 'ESG 참여 챌린지' 추진
지역사회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천 생태계 고도화

"투이지!(Together + Easy + ESG)"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20년간 이어온 나눔과 연대의 기록이자 익산다운 복지의 실천입니다. 어르신은 복지의 대상에서 실천의 주체로, 청소년은 수혜자에서 변화의 반자로, 지역사회는 단절된 공간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익산형 ESG 모델은 지역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 '투이지!'라는 이름의 ESG 실천 모델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익산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 복지격차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지서비스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2008년부터 생활밀착형 ESG 복지 모델을 구축해왔습니다.
주민 참여, 지역 연대, 기관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Q. 환경 분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희가 직접 커피찌꺼기를 모아 방향제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또 연탄을 재배분해 취약계층 난방을 돕고, 복지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어 탄소중립 캠페인도 했습니다. 어르신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환경 실천의 주체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Q. 사회 영역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연탄나눔운동이나 '사랑의 밥 한끼 나눔운동'에 참여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봉사했습니다. 세대가 함께 모여 밥을 나누고 연탄을 나르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결식 문제도 완화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교류가 깊어졌습니다.

Q. 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ESG 기반의 운영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5회 연속 A등급을 받았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또 지역 내 40개 이상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날'을 정례화해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Q.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초기에는 ESG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낮아 참여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자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면서 장벽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노인, 청소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천의 주인공이 되면서 ESG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직원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교육을 운영하고, 'ESG 주간'을 통해 일상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에코 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세대 공감 환경활동도 확대하려 합니다. 또 'ESG 참여 챌린지'를 추진해 주민·기업·학교가 함께하는 실천 문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읍시니어클럽

특별작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정읍시니어클럽 마을지킴이사업 업무 협약식
협약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정읍지사,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일시: 2024.2.29(목) 10:00 ●장소: 정읍시니어클럽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정읍시니어클럽 마을지킴이사업 업무 협약식
협약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정읍지사,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일시: 2024.2.29(목) 10:00 ●장소: 정읍시니어클럽

사각지대 없는 마을, 노인 일자리로 채운 안전과 돌봄 정읍형 ESG 사회서비스 모델 이야기

시작 - 고령화 농촌의 현실

정읍의 농촌 마을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복지기관이나 행정서비스와 거리가 먼 외곽 지역에서는 환경 방치, 안전 사각지대, 복지정보 미전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했습니다.
"마을을 지킬 사람은 결국 마을에 사는 우리 자신"이라는 인식 속에서, 복지관은 노인 일자리를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사회서비스형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마을을 순회하며 환경을 정비하고, 이웃을 살피며, 안전을 점검하는 생활밀착형 ESG 모델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행 - 어르신이 지킴이가 되다

마을안전지킴이 사업단은 준비부터 실행, 점검, 확산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환경(E): 마을 환경정화, 분리수거, 대형 폐기물 신고 및 정리
사회(S): 독거노인 발굴, 복지상담, 치매·우울척도 검사, 정서 지원
거버넌스(G): 활동일지 작성, 반장단 회의, 협력기관 연계로 투명한 운영

어르신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활동하며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협력 - 기관과 주민이 함께 만든 안전망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스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자 교육과 자료 제공을 맡았습니다. 이장단 회의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알리고, 홍보물과 회보를 통해 지역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과 - 숫자와 변화가 말해주는 이야기

정량적 성과 - 마을 방문 2,195회 · 환경정비 및 분리수거 3,263건 · 복지정보 전달 6,538건 · 자택 방문 상담 1,544건 · 제도홍보 2,039건 → 연간 총 13,384건의 활동 실적 달성

질적 성과 - 복지 사각지대 노인가구 10여 건 발굴, 민간 복지자원 연계 · 이발 봉사, 싱크대 수리 등 자발적 재능기반 활동 확대 · 참여자 만족도 96%, 주민 만족도 98% 달성 · 주민 긍정 응답률 85% 이상, 사업 인지도 100% 확보

이 모든 성과는 어르신이 주체가 된 활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애와 극복 - 현장의 지혜

환경: 주민 인식 부족 → 폐기물 정리 후 사진 비교와 만족도 조사로 효과 공유

사회: 고립 노인의 은둔 성향 → 협력기관 연계와 지속 홍보로 신뢰 확보

거버넌스: 참여자 이해도 차이 → 눈높이 교육과 반장단 회의로 자율적 운영 강화

앞으로의 길 - 더 넓은 안전망으로

활동 권역을 외곽 취약 지구까지 확대해 정읍 전역의 균형 있는 복지 안전망 구축

경찰서·보건소 등 안전·보건 분야 협력 강화로 ESG 연계 고도화

반장단 중심 자조조직 운영을 제도화해 참여자 주도성 강화

사업설명회, 언론 홍보 등으로 지역 인식 확산 및 제도화 추진

"사각지대 없는 마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마을을 지키며, 환경을 정비하고, 이웃을 돌보는 과정에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가치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 사례는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어르신이 참여하는 ESG 실천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정읍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Q.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이 떠나면서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외곽 마을은 복지기관 접근이 어려워 환경 방치, 안전 사각지대, 복지 정보 미전달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사회서비스형 활동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이 직접 마을을 지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Q. 어르신들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희는 마을을 순회하며 쓰레기를 치우고 분리수거를 돕습니다.
LP가스 안전 점검도 하고, 독거노인을 찾아 우울척도 검사를 하거나 복지상담을 연결해드리죠. 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싱크대 수리나 미용 봉사 같은 재능 나눔도 합니다. 마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Q. 협력 기관과는 어떻게 연계되나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교육과 자료를 지원받습니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전문가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리플렛이나 검사도구를 전달하며 복지·보건·안전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Q.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나 환경정비에 관심이 적었고, 고립된 노인분들은 낯선 방문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후 전후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회를 열어 효과를 공유하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또 협력기관과 함께 우울척도 검사나 상담을 진행하니 신뢰가 생겼습니다.

Q.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3,384건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마을방문 2,195회, 환경정비 3,263건, 복지정보 전달 6,538건 등입니다. 우울척도 검사도 548건 실시했고, 고위험군은 협력 기관과 연계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는 96%, 주민 만족도는 98%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가구를 발굴해 민간 자원과 연결한 점이 큰 성과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활동 권역을 외곽 취약 지구까지 확대해 정읍 전역의 균형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보건소 등과 협력해 ESG 연계를 강화하고, 반장단 중심의 자조조직을 제도화해 참여자 주도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 설명회와 언론 홍보를 통해 지역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른 시군으로 모델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SG 추진체계

ESG 경영 환경 분석

ESG 경영 추진 반향

ESG 경영 추진체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지속가능한 복지, 신뢰받는 사회서비스원

E
S
G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SG 추진체계

ESG 경영 환경 분석

대외환경

정책환경	• 현정부의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정사회 실현 반영 • ESG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으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사회환경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 및 공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ESG 경영 등 사회적문제 개선 요구 및 윤리경영 지표 강화
경제환경	• 공공기관 알리오 통합공시 기준개정을 통해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부문의 공시대상 추가와 공개대상 항목에서 ESG 경영분류 신설 • 공공기관의 ESG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화 추진

대내환경

목적사업	• 국 · 공립시설 등을 수탁 운영하며,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성 견인 및 윤리 · ESG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모범적인 경영모델 필요 • 사회서비스 기관 인권보호체계 구축 등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인권보호 및 소속시설 인권경영단계 실현을 통한 인권 보호 필요성 증대
기관장 의지	• 9대 전략과제 중 “ESG체계 기반 책임경영체계 고도화” 채택 및 윤리 및 인권경영 내재화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윤리경영 의지 표명
투명, 공정한 조직문화 제고	• 공공기관 알리오 통합공시 기준개정을 통해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부문의 공시대상 추가와 공개대상 항목에서 ESG 경영분류 신설 • 공공기관의 ESG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경영를 통한 효율화 추진
사회서비스기관 ESG 경영 선도	•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에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발판 마련 • 사회서비스 기관 ESG 경영 도입을 위한 ESG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ESG 경영 선도를 위한 ESG 경영 도입 문화 확산

외부환경 분석 결과

①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② 국민의 사회적문제 관심 증가로 공공기관 ESG 경영 의무화
③ 공공기관의 청렴성, 투명성 등 요구 및 엄격한 처벌 요구
④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통한 공정사회 구현 기여

내부역량 분석 결과

① 기관장의 높은 ESG 경영 의지 및 리더십
② 직원의 높은 인식도 및 참여도로 인해 ESG 경영문화 조성
③ 사회서비스기관 ESG 경영 선도를 위한 체계구축 필요
④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에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사업 추진

SWOT 분석

내부역량 / 경영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보유인력 확보 • 기관장의 ESG 의지 및 구성원 긍정 인식 • 소속시설 관리 및 운영노하우와 역량 축적 • 고객(사회서비스 기관 및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환류 시스템 보유	• ESG 경영을 위한 전담부서는 있으나 전문인력 부재와 인력, 예산 등 운영 제한 • 구성원 안전, 윤리경영 등 ESG 내재화 미흡 •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자원 한계성 존재 • 소속시설을 포함한 전체 총괄 및 대외 홍보지원 활용 미흡
기회(Opportunities)	**SO 전략**	**WO 전략**
• 공공부문 ESG 경영 강화 요구 • 공공기관 사회적역할 및 상생가치 강조 • ESG 관련 기술,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전라북도 ESG 조례 발의	•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에 기반한 ESG 중심 경영 운영 •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대응 역량 강화 • 수요자 중심의 ESG 경영 고도화(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동반성장, 상생가치 실현)	• 생활 속 ESG 문화 내재화 • ESG 경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ESG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교류 확대 • 정보 제공을 위한 다각화된 홍보체계 마련
위협(Threats)	**ST 전략**	**WT 전략**
• 기술 트랜드의 급격한 변화 • 공공기관 운영 개방성, 투명성 요구 • 기후변화, 저탄소 등 탄소중립 대응 요구 • 공공서비스 효율화, 효과성 강화 요구	• 서비스의 효과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주요 사업과 연계한 ESG 가치실행 노력 • 지역사회 책임경영으로 ESG 경영 정착	• ESG 경영을 위한 전문역량 제고 • 체계적인 ESG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강화

구분	주요내용	전략목표
SO 전략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계기관과 ESG 경영실천 적극 도입 • 지속적인 적용 가능한 ESG 개발 강화 • 수요자 중심의 ESG 경영 고도화	• 전담부서 및 예산 확보를 통한 ESG 대응 능력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ESG 경영 도입)
ST 전략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계기관과의 ESG 상생협력 방안 마련 • 주요사업과 연동된 ESG 실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예산 확보 및 선순환적 구조 마련	• ESG 역량 향상을 통한 ESG 경영 강화 • 전 부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WO 전략	• ESG 전담조직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 내 · 외부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ESG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교류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으로 ESG 실천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마련
WT 전략	• ESG 경영을 위한 전문역량 제고 • 전사적 차원의 대내외 홍보 및 소통 강화 • 사회서비스의 ESG 경영 및 적용 개발	• 효율적 책임행정체계 구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조성

분야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목표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경영	사회서비스 분야 ESG 선도	신뢰받는 체계적 운영

ESG경영 추진방향

- ESG경영 환경분석 및 재단 4대 전략목표, 이중 중대성 평가에 따른 ESG경영목표 · 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으로 경영체계 고도화
- 전략체계 고도화를 위한 중대성 평가 (2024년 6월~7월) 진행 및 전략과제 선정으로 중장기 로드맵 안정기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유지
- 하반기 ESG 중대성 평가 진행으로 ESG 확산기 전략 과제 도출
- ESG 경영 대외 확산

구분	주요 내용
유관기관	• (사례공유) 사회서비스원 ESG 경영 및 민간기관 우수사례 등을 유관단체 등 공유 • (사업설명회) 사회서비스기관 대상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 (민간기관 ESG 경영 도입)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ESG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운영 • (ESG 사례집 발간) ESG 활성화 노력, 실천과제 등 활동내용, • ESG 공모사업 등을 정리한 사례집 발간으로 ESG 파급 확산
도민	• (캠페인) SNS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ESG활동 공유 • (ESG경영 홍보) 사회서비스원 및 소속시설 ESG 경영 홍보 • (성과보고회) ESG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 운영

ESG경영 추진체계

추진체계

목 표	사회서비스 현장의 ESG 가치를 선도하는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로드맵	구축기('22~'23) • ESG 경영 전략체계 마련 • ESG 경영 내재화 및 선포	안정기('24~'25) • ESG 경영 전략체계 고도화 • ESG 경영 공동 아젠다 설정	확산기('26년 이후) • ESG 경영문화 확산 · 공유 • ESG 거버넌스 확대
ESG 분야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추진방향	• 전담부서 및 예산 확보를 통한 ESG 대응 능력 강화 • ESG 역량 향상을 통한 ESG 경영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으로 ESG 실천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마련 • 효율적 책임행정체계 구현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조성		
전략목표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경영	사회서비스 분야 ESG 선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전략과제 (11개)	• 탄소중립 • 친환경 인식	•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 복지 네트워크 확대 • 민간 품질향상 지원 • 재난안전관리 • 지역사회공헌 •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조직 소통문화 • 인권경영 • 윤리경영
실행과제 본부34개	• 그린오피스 등 6개 과제	• 도민 참여형 사회서비스 정책 의견수렴 등 20개 과제	• 전북사서원 직원소통 등 8개 과제
실행과제 시설79개	• 관할지역 환경정화활동 등 21개	• 학대피해노인 안전확보 등 36개	• 종사자 직무만족도조사 등 22개
추진조직	• 경영기획팀 • 시설운영팀 • 품질혁신팀 • 대외전략팀 • 소속시설16개소		

환류체계	내부점검	외부점검
	• ESG경영 실무추진단	• 도·보건복지부 경영평가 • ESG경영위원회

전략과제(11개) 및 실행과제(113개)

참고

사회서비스원(본부) - 전략과제 11개 및 실행과제 34개

연번	구분	전략과제	실행과제	담당
1	E-1	08. 탄소중립	08-1. 그린오피스	경영
2	E-2	08. 탄소중립	08-2. 환경 보호를 고려한 채용 방식 도입	경영
3	E-3	08. 탄소중립	08-3.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나누고 줄이는' 시설운영팀	시설
4	E-4	08. 탄소중립	08-4. 소속시설 녹색제품 구매실적 점검	시설
5	E-5	11. 친환경 인식	11-1. 소속시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ESG 경영 실천지원	시설
6	E-6	11. 친환경 인식	11-2. 사무실 내 스마트팜 운영	대외
7	S-1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1. 도민 참여형 사회서비스 정책 의견수렴	품질
8	S-2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2. 사회서비스 내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품질
9	S-3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3. 혁신사업 발굴 및 제안	품질
10	S-4	03. 복지 네트워크 확대	03-1. 민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품질
11	S-5	03. 복지 네트워크 확대	03-1. 전북복지희망포럼 추진	대외
12	S-6	03. 복지 네트워크 확대	03-2. 플랫폼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외
13	S-7	05. 민간 품질향상 지원	05-1. 사회서비스기관 컨설팅 지원	품질
14	S-8	05. 민간 품질향상 지원	05-2. 품질향상 공모지원 사업	품질
15	S-9	05. 민간 품질향상 지원	05-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품질
16	S-10	05. 민간 품질향상 지원	05-4. 사회서비스 기관 ESG 활성화 지원	품질
17	S-11	09. 재난안전관리	09-1.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경영
18	S-12	09. 재난안전관리	09-2.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안전관리 컨설팅지원	품질
19	S-13	09. 재난안전관리	09-3. 소속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설
20	S-14	12. 지역사회 공헌	12-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기부 참여	시설
21	S-15	12. 지역사회공헌	12-2. 사회서비스 종사자 응원행사 추진	품질
22	S-16	12. 지역사회공헌	12-3.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및 안전운전	대외
23	S-17	12. 지역사회공헌	12-4. 전북 복지자원 정보 제공	대외
24	S-18	14.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14-1. 소속시설 인사업무 지원	시설
25	S-19	14.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14-2. 소속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지원	시설
26	S-20	14.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14-3. 소속시설의 처우개선 지원	시설
27	G-1	06. 조직 소통문화	06-1. 전북 사서원 직원 소통	경영
28	G-2	06. 조직 소통문화	06-2. 전북 사서원 런치데이	경영
29	G-3	06. 조직 소통문화	06-3. 소속시설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장 월례 전략회의	시설
30	G-4	06. 조직 소통문화	06-4. 전 직원 연수 추진	시설
31	G-5	10. 인권경영	10-1. 소속시설 인권보호체계 구축	시설
32	G-6	10. 인권경영	10-2. 인권영향평가 시행	시설
33	G-7	10. 인권경영	10-3. 민간사회서비스기관 인권컨설팅 운영	품질
34	G-8	13. 윤리경영	13-1. 윤리 경영 계획	경영

사회서비스원(소속시설) - 전략과제 11개 및 실행과제 79개

연번	구분	전략과제	실행과제	담당
1	E-1	08. 탄소중립	08-1. 관할지역 환경정화 활동	서부노보
2	E-2	08. 탄소중립	08-2. 사회적약자 생산품 구입	서부노보 가족센터 에코시티
3	E-3	08. 탄소중립	08-3. 탄소배출 저감 실천	장수자활
4	E-4	08. 탄소중립	08-4. 폐기물 관리	장수자활
5	E-5	08. 탄소중립	08-5. 줍깅 봉사활동	가족센터
6	E-6	08. 탄소중립	08-6. 일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가족센터
7	E-7	08. 탄소중립	08-7. 환경정화(쓰담쓰담 다돌이/흙공이 퐁당퐁당)	에코시티
8	E-8	08. 탄소중립	08-8. 줍깅 및 아이스팩 분리수거	군산다돌1 군산다돌2
9	E-9	08. 탄소중립	08-9. 친환경적 생산활동을 통한 환경보호	지원단
10	E-10	08. 탄소중립	08-10. 넷제로(Net-Zero) 실천	장기요양
11	E-11	08. 탄소중립	08-11. 친환경 소비 실천	청년미래
12	E-12	08. 탄소중립	08-12. CO2 Zero!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전북인돌봄
13	E-13	11. 친환경 인식	11-1. 환경보호	전북노보쉼터
14	E-14	11. 친환경 인식	11-2. 무농약 인증	장수자활
15	E-15	11. 친환경 인식	11-3. 폐배지를 활용한 친환경 퇴비 생산	장수자활
16	E-16	11. 친환경 인식	11-4. 재활용 사업단 운영	장수자활
17	E-17	11. 친환경 인식	11-5. 외부강사 환경프로그램 진행	군산다돌1
18	E-18	11. 친환경 인식	11-6. 자체 환경교육관련 프로그램 진행	군산다돌1
19	E-19	11. 친환경 인식	11-7.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진행	군산다돌2
20	E-20	11. 친환경 인식	11-8. 자체 환경교육관련 프로그램 진행	군산다돌2
21	E-21	11. 친환경 인식	11-9. ESG 실천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내 친환경 문화 확산	장애인지원
22	S-1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1. 학대 피해노인 안전 확보	서부노보
23	S-2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2. 학대 피해노인 의료비 지원	서부노보
24	S-3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3. 맞춤형 복지자원 연계(후원품 지원)	서부노보
25	S-4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4. 학대 피해노인 가정 고립감 해소	서부노보
26	S-5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5. 학대 피해노인 대상 물품 지원(사례자)	전북노보쉼터
27	S-6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6. 이용자 욕구조사를 통한 맞춤서비스 개발	가족센터
28	S-7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7.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	장애인지원
29	S-8	01. 복지 맞춤서비스 개발	01-8.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공동데이터 활용 확대	장애인지원
30	S-9	03. 복지 네트워크 확대	03-1. 업무협약	서부노보
31	S-10	03. 복지 네트워크 확대	03-2. 사례판정 위원회	서부노보
32	S-11	03. 복지 네트워크 확대	03-3. 지역솔루션 위원회	서부노보
33	S-12	03. 복지 네트워크 확대	03-4. 유관기관 협업 통해 네트워크 확대	전북노보
34	S-13	03. 복지 네트워크 확대	03-5. 장애인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화	장애인지원

연번	구분	전략과제	실행과제	담당
35	S-14	05. 민간 품질향상 지원	05-1. 제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지원단
36	S-15	09. 재난안전관리	09-1. 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쉼터
37	S-16	09. 재난안전관리	09-2. 사업장 화재보험 가입	장수자활
38	S-17	09. 재난안전관리	09-3.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장수자활
39	S-18	09. 재난안전관리	09-4. 참여자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장수자활
40	S-19	09. 재난안전관리	09-5. 센터 이용자 및 임직원 안전 확보	장기요양
41	S-20	09. 재난안전관리	09-6. 직원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지원
42	S-21	12. 지역사회 공헌	12-1. 지역 캠페인 활동(노인학대 예방)	서부노보
43	S-22	12. 지역사회 공헌	12-2. 노인 인권증진 위한 지역사회 공헌	전북노보
44	S-23	12. 지역사회 공헌	12-3.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업무협약	장수자활
45	S-24	12. 지역사회 공헌	12-4.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후원	장수자활
46	S-25	12. 지역사회 공헌	12-5. 환경정화 봉사활동	장수자활
47	S-26	12. 지역사회 공헌	12-6. 사회복지시설 생산품 번개장터 운영	장수자활
48	S-27	12. 지역사회 공헌	12-7. 지역 내 사회적약자 생산품 구입	장수자활 군산다돌1 군산다돌2
49	S-28	12. 지역사회 공헌	12-8. 혁신기반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지원	하가영무
50	S-29	12. 지역사회 공헌	12-9. 시니어 및 근로대학생 연계	군산다돌1 군산다돌2
51	S-30	12. 지역사회 공헌	12-10.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신규 파견	대체인력
52	S-31	12. 지역사회 공헌	12-11. 이용자 만족 및 권리	장기요양
53	S-32	12. 지역사회 공헌	12-12. 동반성장 및 지역 상생	장기요양
54	S-33	12. 지역사회 공헌	12-1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전북인돌봄
55	S-34	14.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14-1. 시간외 근무 보상방식 개선	장수자활
56	S-35	14.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14-2. 활성화지원금을 활용한 직원 인센티브 지급	장수자활
57	S-36	14.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14-3.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및 인식개선	장기요양
58	G-1	06. 조직 소통문화	06-1.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서부노보 장수자활
59	G-2	06. 조직 소통문화	06-2. 종사자 고충처리 간담회	서부노보 장수자활
60	G-3	06. 조직 소통문화	06-3. 종사자 면담	서부노보 장수자활
61	G-4	06. 조직 소통문화	06-4. 직원역량 강화	서부노보 장수자활
62	G-5	06. 조직 소통문화	06-5. 서로 공감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가족센터
63	G-6	06. 조직 소통문화	06-6. 직원역량강화 교육	가족센터
64	G-7	06. 조직 소통문화	06-7.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단
65	G-8	06. 조직 소통문화	06-8. 직장 내 소통창구 형성	장기요양
66	G-9	06. 조직 소통문화	06-9. 임직원 역량강화	장기요양
67	G-10	06. 조직 소통문화	06-10.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내부 및 외부소통 개선	장애인지원

연번	구분	전략과제	실행과제	담당
68	G-11	06. 조직 소통문화	06-11. ESG기반 팀워크 챌린지	청년미래
69	G-12	10. 인권경영	10-1. 운영위원회 구성	서부노보 장수자활 가족센터 에코시티
70	G-13	10. 인권경영	10-2. 종사자 아동권리 교육	하가영무 에코시티
71	G-14	10. 인권경영	10-3. 이용아동 인권교육	하가영무 에코시티
72	G-15	10. 인권경영	10-4. 조직 내 존중문화 캠페인	청년미래
73	G-16	13. 윤리경영	13-1. 정보공시	서부노보 장수자활 에코시티
74	G-17	13. 윤리경영	13-2. 예결산 공고	서부노보 장수자활 가족센터 에코시티
75	G-18	13. 윤리경영	13-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서부노보 장수자활 가족센터 에코시티
76	G-19	13. 윤리경영	13-4. 지속가능한 윤리적 경영	전북노보쉼터
77	G-20	13. 윤리경영	13-5.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군산다돌1 군산다돌2
78	G-21	13. 윤리경영	13-6. 합리 민주적인 기관 운영	장기요양
79	G-22	13. 윤리경영	13-7. 청렴한 회계 관리	장기요양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ESG 경영도입을 위한 활동) -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ESG 경영 도입(ESG 경영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기관)

지속가능한 복지, 신뢰받는 사회서비스원

비전 및 환경(E)·사회(S) 부문 주요 성과

1. 우수사례 개요

- 제　　목: 사회서비스 현장의 ESG 가치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동행'
- 추진목표: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경영, 사회서비스 분야 ESG 선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 추진체계: 11개 전략과제 및 34개 실행과제 수립·이행 (달성도 점검 및 환류체계 가동)

2. Environment (환경): 생활 속 탄소중립, 그린 오피스로의 전환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드는 녹색 복지 환경"

① 데이터로 증명하는 '그린 오피스' 혁신

- 디지털 탄소발자국 감축: 불필요한 메일 삭제 및 스팸 차단을 통해 전 부서 메일 용량을 24GB 수준으로 유지(전년 대비 55.6% 감소)하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줄였습니다.
-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 환경: 회의 시 빔프로젝터 및 태블릿 활용, 이면지 사용 생활화, 채용 절차의 100% 온라인화(지원~면접)를 통해 종이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② 조직문화가 된 친환경 캠페인

- 플라스틱 Zero DAY: 매주 수요일을 플라스틱 없는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 텀블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생활화했습니다.
- 자원 선순환 '나누고 줄이는' 마켓: 직원 간 육아용품(의류, 도서) 나눔 및 물려주기 행사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공유 경제를 실천했습니다.

③ 시설까지 확산된 녹색 경영

- 녹색제품 구매 확대: 본부 및 16개 소속시설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및 사회적 약자 생산품 구매 실적을 월별로 점검(총 176회)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 스마트팜 도입: 사무실 내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공기 정화는 물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반려 식물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3. Social (사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울타리

민간 · 공공 상생을 통한 '서비스 품질 혁신'

① 민간과 함께 크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해 '찾아가는 경영 컨설팅(42회)'과 '온라인 상시 상담 창구(10회)'를 운영하여, 회계 · 노무 등 취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 서비스 품질 고도화: 품질향상 공모지원 사업(10개소)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 지원하고, 직급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53회)을 실시하여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② 사각지대 없는 '365일 안심' 안전망 구축

-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소속시설 맞춤형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③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 품질 향상 지원: 경영 컨설팅(42회) 및 온라인 상시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민간 기관의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였습니다.
- 온라인 정보 플랫폼 활성화: 도민들이 복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연간 약 3만 9천여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④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및 명절 맞이 소외계층 위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했습니다.

4. Governance (지배구조): 소통과 인권이 살아있는 투명한 조직

"수평적 소통과 윤리 경영으로 신뢰받는 거버넌스 확립"

① 세대와 직급을 넘나드는 '소통 경영'

- 브라운백 미팅 '런치데이': 부서 간, 세대 간 벽을 허물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데이'를 정례화(연 4회)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협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했습니다.
- 전 직원 소통 간담회: 매월 1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경영 현안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즉각적으로 경영에 반영했습니다.

② 인권 중심의 윤리 경영 체계

- 인권 영향평가 실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 소속시설 인권 보호 강화: 소속시설별 인권 규칙 제·개정을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였습니다.

5. 성과 요약 (Conclusion)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안정기'에 접어든 ESG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34개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탄소 절감(E), 민간 기관 안전 컨설팅을 통한 상생 협력(S), 수평적 소통 문화 정착(G)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공공기관 ESG 경영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
S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ESG,
사회서비스기관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PASS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PASS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Jeonbuk Stat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